

# 한주 이진상의 성리설과 그 계승

홍원식\*

## 【 차례 】

1. 한주학파의 형성과 전개
2. 한주 이진상의 성리설
3. 면우 곽종석의 성리설
4. 한계 이승희의 성리설
5. 맺음말

## 【 국문초록 】

19세기 말, 영남지방에는 寒洲 李震相이 새로운 학파를 열었다. 그의 대표적인 성리설은 理發一途說과 心卽理說이다. 이것은 李滉의 理氣互發說과 心合理氣說을 '적극적'으로 계승한 것이자, 李珣의 氣發一途說과 心是氣說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豎看·橫看·倒看과 順推·逆推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리발일도설을 주장하였으며, 玉石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심즉리설을 주장하였다. 그의 성리설은 제자인 郭鍾錫과 李承熙 등을 통해 계승됨으로써 조선 말 최대의 학파를 형성하였다.

**주제어** 한주 이진상, 리발일도설, 심즉리설, 수간·횡간·도간, 순추·역추, 곽종석, 이승희

\* 계명대학교 철학과.

## 1. 한주학파의 형성과 전개

19세기 후반, 개항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무렵 흔히 '江右'(경상 우도, 곧 낙동강 서부지방) 지역이라고 불리는 낙동강 중류 성주 지방 일대에는 寒洲 李震相(1818-1886)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한 학파가 일어났다. 이진상의 한주학파는 직전, 재전 제자로 이어지면서 조선 말과 대한제국 시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이르도록 다양하면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들 학파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철학은 이진상의 唯理論의 '理發一途說'과 '心卽理說'이다.

이진상은 20세 때에 陶山書院을 배알한 뒤 退溪 李滉을 사숙하며, 30세 때에 '祖雲憲陶齋'라는 편액을 내걸어 마치 孔子가 "堯·舜을 祖述하고 文·武를 憲章하였다"고 말했듯이 朱子(雲谷)를 조술하고 退溪(陶山)를 현장하겠다는 자기 학문의 指南을 밝혔다. 그 뒤 그는 35세와 40세 때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퇴계 학통의 宗匠의 자리에 있던 안동의 定齋 柳致明(1777~1861)을 방문한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미 '심즉리'설을 중심으로 한 그의 성리설이 이미 굳어져가고 있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주자와 퇴계를 정통으로 잇는다고 자처하였으며, 그의 '理發一途說'과 '心卽理說'은 퇴계의 '理氣互發說'과 '心合理氣說'의 핵심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진상이 「심즉리설」<sup>1)</sup>을 지은 것은 1861년 44세 때의 일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 40세 때 두 번째로 유치명을 방문하였을 때 이미 자신의 '심즉리설'에 대해 질정하였다.

(이진상) "心은 一身을 主宰하는 것인데, '주제'라는 두 글자는 理 하나만을

1) 李震相, 『寒洲文集』, 卷32, 雜著, 「心卽理說」 참조.

가리키는 것입니까? 氣를 겸하여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치명) “리와 기를 겸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이진상) “리는 所以로서 주재의 實이고, 기는 所資로서 주재의 具이니, 심이 진실로 리와 기를 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신을 주재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다면 다만 리인 것 같습니다.”<sup>2)</sup>

여기에서 보면 유치명은 퇴계 정통의 입장에 서서 ‘心合理氣’를 말하고 있는 반면 이진상은 심의 ‘주재’적 역할이란 관점에 서서 ‘心卽理’를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理發一途說’이 확정된 것도 이 무렵이다.<sup>3)</sup>

이진상이 50세가 넘어서면서 명성이 江右 지역에 널리 퍼지자 그의 문하에는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의 나이 53세 때인 1870년 봄에 后山 許愈에 이어 그 해 겨울에 侏宇 郭鍾錫이, 1872년에 紫東 李正模가, 1874년에 弘窩 李斗勳이, 1876년 膠宇 尹靑夏가, 1878년에 晦堂 張錫英과 勿川 金鎮祐가 그의 문하로 들어옴으로써 강우 지역 최대의 학파로 커졌다.<sup>4)</sup> 이들은 그의 아들인 韓溪 李承熙와 더불어 흔히 ‘淵門八賢’으로 일컬어진다. 당시 이진상은 서원 등지에서 鄉飲酒禮와 講學 모임<sup>5)</sup>을 자주 가짐으로써 제자

- 2) 李震相, 같은 책, 附錄, 卷1, 年譜, 丁巳, “謁柳定齋.” 여기에서 보면 유치명과 이진상은 처음부터 이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는 이진상을 처음 만나본 뒤 사람들에게 “뛰어난 선비는 文王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일어난다더니만, 그 사람이 바로 이진상이로다!”(『寒洲文集』, 附錄, 卷1, 年譜, 壬子)라고 칭찬하였으며, ‘江右大儒’를 꼽을 때는 항상 이진상을 포함시켰다.(같은 책, 附錄, 卷2, 行錄 참조)
- 3) 이진상은 24세 때 「跋丁愚潭四七辨證」을 지은 뒤 13년간의 수정을 거쳐 35세 때 栗谷의 四七論에 대한 종합적 비판을 담은 「四七辨」과 「朱子言論同異攷辨」 등을 지었으며, 다음 해 「理氣動靜說」 등을 지음으로써 30대 후반에 이미 ‘理發一途說’을 확정하였다.
- 4) 권오영,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438쪽 참조.
- 5) 이진상은 1875년 高靈의 鍾山齋에서 鄉飲酒禮를 열고 『大學』을 講學을 한 이래 1878년에는 星州 禪石寺(神光寺)에서 강학 모임을, 1880년에는 伊淵書院에서 향음주례와 강학 모임을, 1881년에는 고려 館洞에서 『중용』 강학 모임과 居昌의 葛川書堂에서 향음주례를 열었다.(『寒洲文集』, 附錄, 卷1, 「年譜」 참조 : 권오영,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439-440쪽 참조.) 이 중 특히 禪石寺에서 열린 강학 모임은 10여 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小學』·『中庸』과 함께 이진상이 지은 「中庸疑義」도 강론하였다.

들은 더욱 몰려들었으며 학파는 더욱 결속되어 갔다.

한편 이진상은 61세 때인 1878년에 그의 성리설을 종합하여 『理學綜要』를 지었다. 『리학중요』는 1884년 그가 한차례 校勘하였으며, 곽종석 등 문인들에 의해 몇 차례 校訂을 거친 뒤 마침내 사후 11년만인 1897년에 고령 會輔契<sup>6)</sup>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앞서 1895년에는 곽종석과 아들 이승희 등에 의해 居昌 井泉의 原泉亭에서 그의 문집인 『寒洲先生文集』이 간행되었다.<sup>7)</sup> 이렇게 제자들의 교정을 거쳐 문집과 『리학중요』가 간행되면서 그의 '리발일도설'과 '심즉리설'은 주자와 퇴계를 정통으로 잇는 한주 학통의 정안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한주의 성리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그의 '리발일도설'과 '심즉리설'은 퇴계의 '리기호발설'·'심합리기설'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퇴계의 '리기호발설'과 '심합리기설'의 '實'을 보면 바로 자신의 '리발일도설'과 '심즉리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퇴계 학통을 굳게 지키고 있던 이들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계의 정통을 주장하는 안동 지역의 定齋 學脈은 물론 강우 지역 省齋 許傳의 학맥, 심지어 사돈인 許蕙, 어릴 적부터 道友였던 張福樞 등으로부터도 그의 성리설은 동의를 받지 못한다. 도리어 그의 문집이 발간되어 陶山書院에 봉정되자 牌子와 通文을 통해 격렬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심지어 상주의 道南書院에서는 불태워지기까지 하였다.

곽종석, 이승희 등 한주의 후예들은 스승의 학설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그리고 이 모임에는 四未軒 張福樞와 勸山 許薰도 참가하였다. (李鍾杞, 『晚求文集』, 卷 8, 雜著, 「遊禪石錄」 참조)

6) 會輔契는 1875년 이진상이 고령의 鍾山齋에서 鄉飲酒禮를 열고 『大學』을 강의할 때 郭暉根과 郭燾 등이 만들었다.

7) 이것은 初刊本(乙未本)이며, 『畝忠錄』을 빼는 등 약간의 刪定을 거쳐 1927년에 星州의 三峯齋堂에서 再版本(丁卯本)을 발간하였다.

옹호하는 가운데 한주학파는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재전 제자들에게로까지 활발하게 학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한주의 후예들은 이렇게 한주의 성리설을 적극적으로 계승,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畿湖 栗谷學統 華西(李恒老) 학파의 ‘心說論爭’에 뛰어들어 화서의 심설이 한주의 심설과 닮았다는 생각에 省齋 柳重教를 비판하는 한편 重菴 金平默 등을 편들었으며, 마찬가지로 蘆沙 奇正鎭의 성리설이 한주의 성리설과 상통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 노사학맥과 가까이 지내는 반면 ‘性師心弟說’을 제기한 良齋 田愚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 2. 한주 이진상의 성리설

한주 이진상 성리설의 핵심은 앞에서 거듭 말했다시피 唯理論的 理發一途說과 心卽理說이다. 이것은 기호 율곡학파의 성리설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퇴계의 성리설과도 자못 다르다. 그러나 그의 성리설은 퇴계 성리설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한 걸음 더 발전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먼저 이진상은 理有體用을 통해 理의 動靜을 말하고 있다.

氣가 있기 전에 먼저 理가 있었으니, 이 리가 있자 비로소 動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 또한 太極의 동이며, 정 또한 태극의 정이다. 동하면 곧 양을 낳고, 정하면 곧 음을 낳아 이러한 동정함으로 말미암아 기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으며, 이때 리는 항상 초가 되고 기는 항상 賚가 된다. 동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으나 동정의 신묘함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리의 본래 모습(體)이며, 동하기도 하고 정하기도 하면서 동정의 기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리의 신묘한 작용(用)이다. 기는 동하면 정하지 않고 정하면 동하지 않으니, 결코 스스로 동하고 스스로 정하는 사물이 아니다.<sup>8)</sup>

8) 李震相, 『寒洲全書』, 『與李愼庵晚愨書』.

이렇게 理有體用論<sup>9)</sup>을 바탕으로 理의 動靜<sup>10)</sup>을 맨 처음 말한 것은 퇴계 이황이며, 이러한 理動靜·理發論은 퇴계 학통을 통해 계승되었다.<sup>11)</sup> 그런데 이진상은 여기에서 動靜의 질적 차별성을 통해 기의 동정과 리의 동정을 구분하고 있다. 곧 그는 동정함에 있어서 리가 원인자이자 主가 되며, 自動自靜하는 리 동정의 특성을 들어 기의 동정과 질적 구분을 하고 있다. 동정의 질적 차별성을 강조한 그는 마침내 理發一途說을 제기한다.

性是 '아직 발하지 않은'(未發) 리이고, 情은 '이미 발한'(已發) 리이며, 성이 발하여 정이 되니 다만 똑같은 리일 따름이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집을 나서면 손님이 되지만 같은 사람일뿐인 것과 똑같다. 진실로 성과 정은 실제 모습을 구분하여 보면, '리가 발한 것'(理發)만 있지 '기가 발한 것'(氣發)은 없다.<sup>12)</sup>

이진상은 性發爲情論을 바탕으로 性과 情이 未發과 已發의 차이만 있지 모두 똑같은 理發이라고 말한다. 性(四端)만이 아니라 情(七情)도 모두 理發로만 설명하고서 氣發은 아예 말하지 않는다. 氣가 發하긴 하되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理의 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理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理發一途說은 퇴계의 理氣互發說을 수정한 측

9) 李滉은 北宋 周敦頤의 「太極圖說」을 끌어와 理가 動靜함을 정당화하였다. 『退溪集』, 卷18, 「答奇明彦別紙」 참조.

10) 李滉, 『退溪集』, 卷25, 「答鄭子中」 참조.

11) 현상운은 "萬庵(李玄逸)에게서 시작한 互發說 옹호의 이론이 密庵(李穡)에 와서는 氣의 작용을 기다리지 않고 理만으로도 日用事爲의 體用이 기본적으로 本具하였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고, 大山(李象靖)에게 전하여서는 리가 단순히 無爲無力한 정지체가 아니요, 리 자신으로 능히 發揮運用할 수 있는 活物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었고, 또 다시 定齋(柳致明)에게 전하여서는 리에 能動能靜하는 神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발적 동정으로부터 음양오행의 기가 출생했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리는 우주의 주체 심의 본체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같이 발달한 리의 개념을 더한층 확충하여 '心卽理'라고 단언하여 主理說의 절정을 지은 것은 李震相의 성리설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현상운, 『조선유학사』(현음사, 1982), 359-360쪽 참조.

12) 李震相, 『寒洲全書』1, 「答郭鳴遠疑問」.

면도 보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적극적 계승의 측면이 있다. 이제 퇴계 학통의 理氣互發說은 이진상에 이르러 理發一途說로 계승되면서 율곡 학통의 氣發一途說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한주의 理氣說은 이제 ‘主理’라는 말보다는 ‘唯理’라는 말로 규정하는 것이 더 실제 내용과 부합하게 된다.<sup>13)</sup>

이진상은 이렇게 퇴계·율곡 등과 다른 자신의 ‘리발일도설’을 그의 豎看·橫看·倒看說을 끌어 들여 설명하였다. 그는 물의 비유를 통해 豎看·橫看·倒看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 하나의 물이 있는데, 위로부터 豎看하면 샘으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물줄기가 수없이 많으나 똑같이 샘물이 흘러간 것이다. 가운데로부터 橫看하면 물이 샘에 있는 것은 말할 수 없으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나뉘이기 시작하므로 江이 흘러(發) 沱水가 따르며(隨) 河가 흘러(發) 濟水가 탄다(乘)고 해도 또한 옳지 않음이 없다. 그 아래로부터 倒看하면 물의 원천이 멀어서 볼 수 없고, 물줄기가 많아서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물이 같다(同)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억지로 한 가지(一)로 여기려 든다면, 濟水를 河로 알고, 渭水를 가리켜 涇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마침내 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sup>14)</sup>

13) 이형성은 “(현상윤처럼) ‘心卽理’라고 단언하여 主理說의 절정이었다고 하여, 이진상의 성리사상을 一元論 내지 唯理論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진상의 방법론에 의하면 원리적 측면(理)과 현상적 측면(氣)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그가 리를 기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리의 가치로서의 大本性이다. 그러므로 그의 성리사상을 일원론 내지 유리론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겠다”(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성리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7쪽, 제1장 주38)고 말하였다. 그가 말한 이진상의 방법론이란 바로 “豎看·橫看·倒看이라는 3단계 인식방법과 逆推·順推라는 2단계 논리형식”으로, 이진상은 이를 통해 “기존의 성리학설을 철저히 주도면밀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계통적으로 서술하였다고 말하였다.(같은 곳, 17쪽 본문 참조) 그런데 이진상이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선유의 성리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긴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퇴계 학통, 나아가 자신의 성리설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그의 철학이 일원론 내지 유리론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서 이진상은 자신의 리발일도설은 수간한 것이요, 퇴계의 리기호발설과 울곡의 기발일도설은 횡간, 도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과 선유의 학설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설이 가장 옳은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수간·횡간·도간의 설을 다시 順推·逆推의 설과 연결시켜 말하였다.

사물에서 보는 것은 역추이고, 그 근본으로 미루어 나아가는 것은 순추이다. 역추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순추하는 것은 천리의 근원이다. 사물상에서 역추하면 그 겉모습에 매달리게 되고, 이치에 따라 순추하면 참모습을 얻을 수 있다.<sup>15)</sup>

이진상은 여기에서 도간을 순추로, 횡간과 도간을 역추로 보고 있으며 도간의 순추를 통해서만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수간·횡간·도간설은 그의 성리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근본적 관점으로, 그 연원은 그의 숙부 凝窩 李源祚(1792-1871)에 있다.<sup>16)</sup>

이진상이 이처럼 唯理論의 理發一途說을 제기한 본래 뜻은 이미 퇴계의 主理論의 理氣互發說에서도 나타났듯이 理의 能動能靜함을 통하여 氣에 대한 주재성을 확보하자는 데에 있다. 퇴계는 일찍이 만약 理가 動靜하지 않는다면 죽은 사물이 되고 만다<sup>17)</sup>는 말로 주자학의 정론인 ‘理는 作爲하지 않는다’는 말에 항변하고 있다. 퇴계의 주장 속에는 리가 죽은 사물처럼 動靜하지 못한다면 氣나 氣의 動靜을 주재할 수 없다는 그의 깊은 고민이 들어 있다. 여기에서 어찌 보면 理가 실제로 動靜한다는 사실보다 動靜해야 한다는 당위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理가 살아서 動靜하며 主宰한다

14) 李震相, 『寒洲全書』4, 『求志錄』, 卷11, 「太極圖衍義後說」, 423쪽.

15) 李震相, 『寒洲全書』2, 『理學綜要』, 卷1, 「天道第一上」, 12쪽.

16) 李源祚, 『凝窩全集』, 卷12, 雜著, 218쪽과 222쪽 참조.

17) 李滉, 『退溪集』, 卷18, 「答奇明彦別紙」 참조.



는 생각은 퇴계 學統의 굳은 확신이며, 이진상은 그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재성의 내용을 담보하는 퇴계 학통의 理活物說은 이진상에 의해 心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면서 ‘心卽理’로 귀결되어간다. 그는 특히 퇴계의 『聖學十圖』 중 第3圖인 「心統性情圖」의 해석을 통해 心卽理의 명제를 제기한다. 이 ‘心統性情論’은 중국 北宋의 張載에 의해 제기되고 주자에 의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진 주자학의 대명제이다. 그는 앞에서 제기한대로 性만이 아니라 情마저도 理로 설명한 마당에 理인 性과 情을 통솔하고 주재해야 할 위치에 있는 心이 氣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性과 情이 다만 똑같이 理이므로 心이 理가 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sup>18)</sup>는 말로 적고 있다. 性뿐만 아니라 心과 情도 모두 理라는 결론을 다음의 글에서 보다 상세히 밝히고 있다.

性이 氣質을 떠날 수는 없지만 性의 名義만을 오로지 말하면 理일 따름이고, 心도 반드시 形體를 가지고 있지만 心의 主宰만을 오로지 말하면 理일 따름이며, 情도 氣가 用事하는 가운데 생겨나지만 情의 根因을 오로지 말하면 또한 理일 따름이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진상은 心의 主宰的 성격을 들어 心卽理를 말하는데 다시 보면 心卽理만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性卽理’·‘情卽理’와 함께 ‘心卽理’를 말하고 있다. 주자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心卽理보다 情卽理가 더 문제 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문제된 것은 心卽理이다. 이 心卽理說은 율곡의 ‘心是氣’는 물론이고 퇴계의 ‘心合理氣說’과도 다르며 도리어 이단시되던 陽明學의 ‘心卽理’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세었던 것이다. 그는 玉石의 비유를 들어 자신의 心卽理를 설명하는 한편 율곡의 ‘心是氣’를 비판하고 있다.

18) 李震相, 『寒洲全書』1, 卷32, 「心卽理說」.

대저 옥은 천하의 지극한 보배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돌을 옥으로 아는 자가 있다. 형산의 옥은 돌 속에 싸여 있어 오직 卞和만이 그것이 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왕에게 바쳤는데, 왕이 玉工을 불러 보이니 돌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 걸의 돌만 보고서 그 안의 옥을 알지 못한 것이다. 조정에서 조금 옥과 돌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있었는데, 역시 모두 돌이라고 했다.<sup>19)</sup>

이진상은 위의 예문에서 자신의 心卽理說은 돌 속에 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卞和에 비유하고 울곡의 心是氣說은 돌속에 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옥공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곧 울곡의 心是氣說이 심의 알맹이는 보지 못한 채 겉껍데기만 보고 한 말이라는 비판이다. 그리고 옥과 돌을 조금은 구별할 줄 알지만 역시 돌이라고 한다는 것은 퇴계의 心合理氣說을 끝이곧대로만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것은 퇴계의 心合理氣說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계의 心合理氣說을 문자에만 매달려 고지식하게 추종하는 퇴계의 후예들을 비판한 것이다. 동시에 자신이야말로 퇴계 心合理氣說의 참뜻을 알아 心卽理說을 통해 퇴계의 心說을 진정하게 이어받았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한편 양명학의 心卽理說은 엉뚱하게도 돌을 보고 옥이라 하고, 氣를 보고 理라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20)</sup>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양명학의 心卽理說은 곧 心卽氣說이 되고 만다고 말한다.

위의 논의를 보면 이진상이 心에는 理와 氣 양 측면이 모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心에 대한 이러한 理氣論의 이해는 이미 주자에게서 나타나는데, 그는 직접 주자의 言論들을 분석해 자신의 心卽理說을 이끌어내고 있다. 곧 그는 주자의 言論 속에서 心을 氣로 말한 것<sup>21)</sup>과 理로

19) 같은 곳.

20) 같은 곳 참조.

21) “性猶太極也，心有陰陽也”，“心者氣之精爽”(『朱子語類』，卷5，「性理」)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말한 것<sup>22)</sup>을 구분한 뒤 **心을 理로** 말한 것만을 들어 자신의 **心卽理說**을 입론했음을 말한다. 여기에는 **心을 理로** 이해한 것만이 주자 **心說**의 정수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그가 이렇게 **心을 理로** 보았을 때 이 **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主宰性**이다. 그리고 그는 **心卽理**의 **心**을 **氣**의 **心**과 구분하여 ‘**本心**’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한편 그는 주자의 言論 속에서 단순히 **心**의 용례를 분석해 구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층차의 용례가 주자 이론의 완전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心**을 **氣**로 이해한 것을 그의 初年說로, **心**을 **理**로 이해한 것을 그의 晩年說로 정리한다.<sup>23)</sup> 사실을 떠나 여기에서 어떻게 든 **心卽理說**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는 그의 충정은 읽을 수 있다.

### 3. 면우 곽종석의 성리설

旣字 郭鍾錫이 한주 이진상의 문하로 나아간 것은 25세(1870년) 때이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이미 『晦窩三圖』(23세)를 지어 晦庵(朱子)과 晦軒(安珦), 晦齋(李彥迪)의 주자학 전통을 잇겠다는 뜻을 세웠으며, 또 자신의 대표적 성리설이 담긴 『四端十情經緯圖』(25세)를 지었다. 그래서 스승과의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理氣**에 대한 학설이 서로 합치되어 두 사람의 무릎이 맞닿도록 자리가 가까워져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는 말이 전한다. 한주 문하에 나아간 뒤인 28세 때 그는 『心性雜記』를 지어 **心卽理說**을 중심으로 한 한주의 **心性說**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며, 32세 때 지은 『理訣』에서 **理氣論** 등 자신의 성리설을 완성시키고 있다. 여타 중요한 성리설의 연구저술로 26세 때 大山 李象靖의 『心動靜圖』에 의문을 가져 지은 자신의 『心動靜

22) 李震相, 『寒洲全書』2, 『理學綜要』, “朱子曰, 心者天理之主宰也”와 “朱子曰, 心者天理在人之全體” 참조.

23) 李震相, 같은 책, 같은 곳, 卷8, 『心』 참조.

圖』, 南塘 韓元震의 人心道心說을 비판하면서 지은 「書韓南塘人心道心說後」, 40세 때 北宋 周敦頤의 『태극도설』과 『통서』를 언해한 『太極圖說通書諺解』 등이 있다.

곽중석은 이진상의 문하에 나아간 지 3년 뒤 지은 「心性雜記」에서 이미 “한주 선생이 태어나서 孟子와 程子の 끊어진 실마리를 찾고, 朱子와 退溪의 올바른 학문전통을 살피 心卽理를 제창하였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와 세간 학자들의 근거 없는 비난을 논파하였으니, 그 공으로 논한다면 오늘날의 程子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라 하여, 이진상을 유교 道統의 한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心卽理說을 단순히 이진상 한 사람의 학설이 아닌 성현들께서 道統相傳한 바로 그 핵심 내용이라고 단언하였다.

곽중석은 이진상의 唯理論의 理發一途說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는 주재하는 것(主宰)이 理이고 돕는 것(資助)은 氣라고 하여 퇴계에서 한주에게로 전해온 ‘理有動靜說’·‘理有體用說’을 이어받고 있다.<sup>24)</sup> 아울러 理의 인식과 관련해서도 한주가 豎看·橫看·到看으로 나눈 것을 이어받아, 그는 율곡의 氣發一途說은 사물의 형적만 좇아 到看한 것인 반면 퇴계의 理氣互發說은 豎看과 橫看을 겸한 것이라 하여 퇴계의 설을 옹호하고 있다.<sup>25)</sup>

한편 곽중석은 퇴계의 『聖學十圖』 중 제3도인 「心統性情圖」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心卽理說을 전개함과 동시에 한주의 心卽理說을 계승, 옹호하고 있다. 퇴계의 「心統性情圖」는 원래 元나라 程復心(호 林隱)의 「心統性情圖」를 上圖로 하고 여기에 퇴계 자신이 中圖와 下圖를 덧붙인 것인데, 그는 이 중에서도 특히 中圖를 心卽理說의 핵심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sup>26)</sup>

곽중석은 먼저 스승 이진상과 자신이 말하는 心卽理說에서의 心은 ‘本心’이요, ‘眞心’이며, ‘主宰之心’임을 말한다.<sup>27)</sup> 그는 이 가운데서도 심의 주재적

24) 郭鍾錫, 『侏宇集』3, 卷129, 「理訣續上」 591, 593쪽 참조.

25) 郭鍾錫, 같은 책, 卷112, 「答裴汝鸞」, 乙亥 別紙 317쪽 참조.

26) 郭鍾錫, 『侏宇集』1, 卷36, 「答李子翼」, 乙亥, 609쪽 참조.

측면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는 주자학의 대명제인 ‘心統性情論’을 바탕으로 심만이 주재력을 지니며, 심이 정은 물론 리인 성을 주재하기 위해서는 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심만이 주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심이 性을 검속하는 것이지 性이 心을 검속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후 광종석은 당시 기호학과 내에서 전개된 心에 대한 主理·主氣적 해석의 논란에도 뛰어들어 율곡 학통의 嫡傳임을 자임하던 艮齋 田愚(1841~1922)의 ‘心是氣’의 입장에 선 ‘性師心弟論’을 비판하였으며, 盧沙 奇正鎮(1798~1879)의 心卽理說도 철저히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華西學派 내의 心說 논쟁에도 뛰어들어 華西 李恒老(1792~1868)의 心主理說을 적극 지지하면서 스승의 설을 고수하는 洪在龜와 柳基一의 心主理說에 대해 조언을 하는 한편 스승의 설을 수정한 省齋 柳重教(1832~1893)의 心主氣說에 대해서는 「柳省齋心說辨」<sup>28)</sup>이라는 비판의 글을 쓴다. 그리고 이진상의 문집이 간행되자 李晩寅·李載基 등 퇴계 학통 안의 心卽理說 비판에 대해서 옹호하고 나섰으며, 한주 心卽理說에 회의적인 여타 영남지방의 李子翼·李種杞·曹兢燮 등과도 토론, 설득해갔다.<sup>29)</sup>

#### 4. 한계 이승희의 성리설

韓溪 李承熙는 1847년 李震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08년(62세)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길에 올랐다가 1916년 奉川(현 瀋陽) 小北關에서 향년 70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망명 이전 그는 한주학파의 일원으로서 스승이자 아버지인 한주 이진상의 성리설을 공부하여 이어받고, 그의 사후 광종석 등과

27) 郭鍾錫, 『侂宇集』2, 卷47, 「答權舜人」 81쪽 참조.

28) 郭鍾錫, 『侂宇集』3, 卷130.

29) 郭鍾錫, 『侂宇集』2, 卷85, 「答曹仲謹」 癸巳 別紙 등 참조.

한주의 문집을 발간하며, 문집 발간 후 그의 성리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온힘을 다해 옹호하였다.

李晩寅이 이진상의 理發一途說에 대해 “이 말도 잘못이 없을 수 없으니, 情이 진실로 已發의 리를 가지고 있지만 已發의 기 또한 없겠는가? (이진상이) 理發만 있지 氣發은 없다고 말한 것은 栗谷이 氣發만 있지 理發은 없다고 말한 것을 반대하려고 한 까닭에 그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지나침을 면치 못한 것이다. 기가 과연 발하는 것이 없겠는가?”<sup>30)</sup>라고 비판하자, 이승희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이진상이) 性은 未發의 리이고 情은 已發의 리라고 말한 것은 大山의 설이고, 성과 정은 한가지 리라고 말한 것은 퇴계의 설이다. 어느 설에 잘못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未發에도 기가 없는 것은 아니나 性의 실상은 리이며, 已發에도 기가 없는 것은 아니나 情의 실상은 리이다. 그러므로 퇴계 선생이 性과 情은 한가지 리이며, 또 리는 그 자신 속에 體와 用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코 말했던 것이다.<sup>31)</sup>

일단 이승희는 이진상의 理發一途論의 理發說이 퇴계 이황과 대산 이상정에 연원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비판의 표적을 벗어난다. 이러한 理發說의 연원을 대는 논의는 다른 곳에서도 이뤄진다. 곧 그는 理發說을 정당화하면서 주자와 퇴계의 학통에서 있는 우복 정경세, 성호 이익, 입재 정종로 등을 끌어들이고 있다.<sup>32)</sup> 그리고 위 인용문을 좀더 자세히 보면, 氣發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已發 때에만 아니라 未發 때에도 氣發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未發의 性과 已發의 情 모두에 있어 그 핵심(實)은 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진상이 氣發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30) 李承熙, 『韓溪遺稿』6, 「宜錄條辨」, 179쪽.

31) 같은 곳.

32) 李承熙, 같은 책, 「道南通文條辨」, 205쪽 참조.

스스로에 의한 理發과 그렇지 못한 氣發을 동질적으로 볼 수 없으며, 氣發이 理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氣發은 理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한편 이승희는 퇴계의 理氣互發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찍이 이진상이 리와 기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부부와 자녀의 예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다. 곧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 그 공이 두드러진 것을 보고 어머니가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氣發의 설이요,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닮고 따르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낳는다고 하고 여자아이가 어머니를 닮고 따르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理氣互發의 설이요, 아버지가 낳았다고 말하고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理發의 설이라고 한주는 말하였다.

이승희는 이 비유를 이어 어머니가 낳는 것만 보고 바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근세 학자들이 四端과 七情이 모두 氣에서 發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어머니가 낳는다고만 말하는 것은 선배 유학자가 사단과 칠정이 모두 氣에서 發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낳고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근세의 理와 氣를 대립시켜 각각 發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sup>33)</sup> 여기에서 이진상과 이승희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비유를 들어 비판한 것은 당시의 理氣互發論者이다. 당시의 리기호발론자들은 퇴계의 리기호발론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한편 이승희는 이진상의 四七理氣說이 ‘豎看’과 ‘橫看’에 따라 달라짐을 말하기도 한다. 곧 종적으로 보면 사단과 칠정이 모두 理가 發한 것이지만, 횡적으로 보면 사단은 理가 發한 것이고 칠정은 氣가 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33) 李承熙, 같은 책, 「書先君四七原委說後」, 110~111쪽과 「宣錄條辨」, 180~183쪽, 그리고 「陶山通文條辨」, 197~198쪽 참조.

이 모두 주자와 퇴계의 뜻을 드러내 밝힌 것이자 이진상이 「四七原委說」을 지은 까닭이라고 말한다.<sup>34)</sup> 이렇게 볼 때, 이진상에서 이승희 등으로 이어지는 한주학파에서 氣發을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로 퇴계 학통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을 때만 인정할 뿐 그들의 본뜻은 理發을 말하는 데 있다. 理發을 통해 理의 動靜을 말하고, 理의 動靜을 통해 理의 主宰性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이 목적인 바였다.

심즉리설은 율곡학파이든 퇴계학파이든 모두 이단으로 내몰았던 학설이다. 퇴계학파 안에서 문호지쟁을 불러일으켰던 주범도 바로 이 심즉리설이다. 이승희는 이진상과 마찬가지로 陽明學의 心卽理說은 朱子學의 입장에서 보면 心卽氣說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참다운 心卽理說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진상의 심즉리설이 양명학의 심즉리설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드러난 말’(文)만 본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적’(意)으로 보면 도리어 주자와 퇴계의 본뜻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sup>35)</sup> 나아가 심즉리설은 주자와 퇴계뿐만 아니라 이전 성현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온 진리이며, 그것은 퇴계학파의 도통을 따라 자신들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곧 그는 심즉리설을 변론하기 위해 공자와 맹자로부터 중국의 소옹, 정호·정이, 여동래, 주희, 진덕수를, 그리고 조선의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와 이황을 거쳐 조식, 김우옹, 장현광 등을 끌어들었다.<sup>36)</sup>

그러나 심에 대한 퇴계의 정안은 心卽理가 아니라 心合理氣이다. 이에 이승희는 퇴계가 心을 理와 氣의 合으로 본 경우와 理로 본 경우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34) 李承熙, 『韓溪遺稿』6, 「書先君四七原委說後」, 110~111쪽 참조.

35) 李承熙, 같은 책, 「宣錄條辨」, 185~186쪽 참조.

36) 李承熙, 같은 책, 「道南通文條辨」, 204쪽 참조.



퇴계선생께서 어찌해서 (心을) 이미 理와 氣를 합한 것이라고 말해놓고서 또 스스로 理일 따름이라고 말했는가? 여기에는 그 까닭이 있다. 무릇 理와 氣를 합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主宰의 本體와 作用의 바탕(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心의 알맹이(實)가 되는 것은 주재의 본체에 있지 작용의 바탕에 있지 않다. (心이) 已發의 때에는 … 氣를 섞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未發의 때에는 … 오직 이 본체가 그 무엇도 섞이지 않은 채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까닭에 理일 따름이라고 단언했다.<sup>37)</sup>

여기에서 이승희는 퇴계가 心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 主宰力을 지닌 본체와 未發 상태의 本體에 대해서는 理로 인식했다고 말한다. 동시에 퇴계가 心을 氣로 이해한 것은 心의 겉껍데기나 찌꺼기를 가리켜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이진상도 모든 心을 理로 인식한 것은 아니며 心을 氣로 말한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하였다.<sup>38)</sup>

## 5. 맺음말

조선 말 개항기로부터 건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근 1세기 동안 한주 이진상과 그의 후예들은 한국 주자학설을 총결함과 동시에 그것의 근대적 변용을 시도하고, 또 현실 운동의 이론적 밑받침으로 삼음으로써 당시 최대의 학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진상은 퇴계 이황의 理氣互發說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唯理論의 理發一途說을 제기하였으며, 마침내 퇴계의 리기호발설 속에 담겨 있는 理의 能動·自動性和 主宰性を 바탕으로 心卽理說을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진상의 후예들

37) 李承熙, 같은 책, 「宣錄條辨」, 178쪽.

38) 李承熙, 같은 책, 「宣錄條辨」, 175쪽 참조.

은 스승을 학설을 계승, 옹호하는 데 전심전력함으로써 학파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갔으며, 현실 운동의 이론적 바탕으로 삼음으로써 근대사에 분명한 족적을 남겼다.<sup>39)</sup>

이진상은 먼저 퇴계의 理有體用·理動靜說을 이어받고, 理發과 氣發은 質的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理發一途說을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자신의 리발일도설과 퇴계의 理氣互發說, 그리고 율곡의 氣發一途說을 豎看·橫看·側看, 그리고 順推·逆推와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順推·順推의 방법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리발일도설이야말로 퇴계의 리기호발설의 핵심(實)을 계승한 것이며, 많은 이들은 리기호발이라는 퇴계의 말에만 빠져 있다고 보았다. 광종석과 이승희 및 여타 한주의 문인들은 스승의 설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한편 이진상은 一身을 主宰하고 性과 情을 統帥해야 하는 心은 理여야 한다는 생각에 心卽理說을 제기하였다. 현실적으로 보면 심은 理的인 측면과 氣的인 측면이 함께 있지만, '本心'은 바로 理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心卽理說과 퇴계의 心合理氣說, 그리고 율곡의 心是氣說을 玉石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심즉리설은 둘 가운데 옥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광종석은 이 심즉리설이야말로 맹자와 정자, 주자와 퇴계의 정통을 잇는 것이라 말하였으며, 이승희 역시 공·맹 이후 중국과 한국의 수많은 인물들을 끌어들이면서 심즉리설이 유교 도통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광종석은 심즉리의 입장에 서서 퇴계학통 안의 비판에 맞서는 한편 기호 華西學派 안의 心說論爭에 끼어들기도 하였으며, 이승희는 심즉리설을 그의 孔子教運動으로 연결시켜 나갔다.<sup>40)</sup>

39) 홍원식, 「이진상의 철학사상과 그의 후예들」, 『동양학』, 29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참조.

40) 홍원식, 「한계 이승희의 공자교운동」, 『공자학』, 3호, 한국 공자학회, 1998 참조.

## 【참고문헌】

朱熹, 『朱子語類』

李滉, 『退溪集』

李源祚, 『凝窩全集』

李震相, 『寒洲文集』

郭鍾錫, 『侂字集』

李承熙, 『韓溪遺稿』

李鍾杞, 『晚求文集』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1982

권오영, 『조선 후기 유럽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이형성, 「한주 이진상의 성리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홍원식, 「한계 이승희의 공자교운동」, 『공자학』, 3호, 한국 공자학회, 1998

홍원식, 「이진상의 철학사상과 그의 후예들」,

『동양학』, 29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Abstract

Hanju Lee JinSang's Theory of SungLi and its development

Hong, Won-Sik

In the late 19 century, Hanju(寒洲) Lee JinSang(李震相) developed a new school in Youngnam. His representative theories were Theory of Libalildo(理發一途說) and Theory of Simzeokli.(心卽理說). They positively succeeded to Lee Hwang(李滉)'s Theory, Theory of Likihobal(理氣互發說) and Theory of Simhabliki(心合理氣說), and criticized Lee Yi(李珥)'s Theory, Kibalildo(氣發一途說) and Theory of Simsiki(心是氣說). Through the viewpoint of Suga(豎看)·Hoenggan(橫看)·Dogan(倒看) and Sunchu(順推)·Yugchu(逆推), He asserted his Theory of Libalildo, and figuratively speaking to Jade stone, He asserted his Theory of Simzeokli. As His disciples, Kwag JongSeok(郭鍾錫) and Lee SeongHee(李承熙) etc, succeeded to theories, They formed the greatest school in the later Chosun dynasty.

Key Word

Hanju(寒洲) Lee JinSang(李震相), Theory of Libalildo(理發一途說), Theory of Simzeokli(心卽理說), Suga(豎看)·Hoenggan(橫看)·Dogan(倒看), Sunchu(順推)·Yugchu(逆推), Kwag JongSeok(郭鍾錫), Lee SeongHee(李承熙)